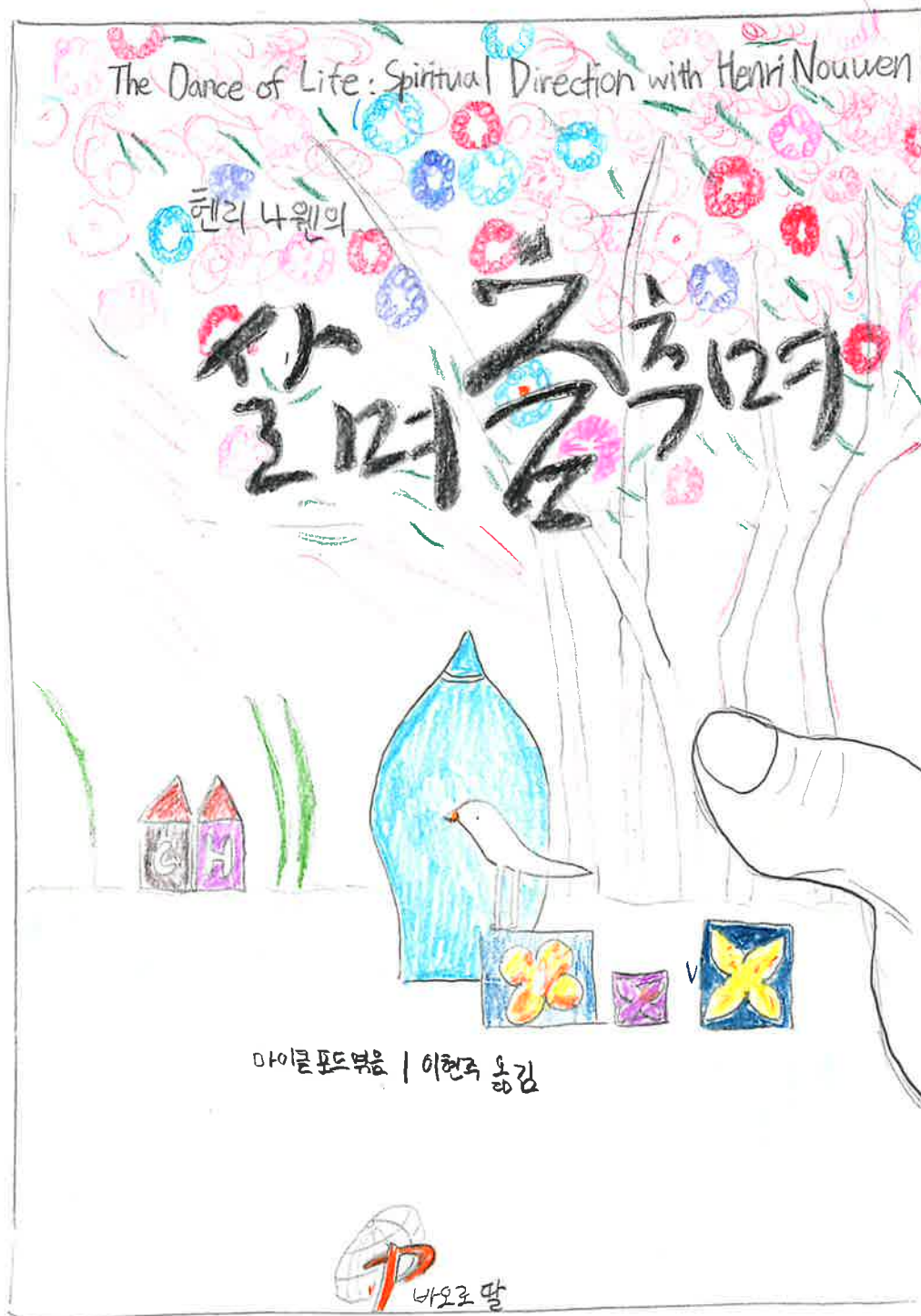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책





글쓴이: (가미야) (2004) 그림: (정지현)

# 이근치수의 비밀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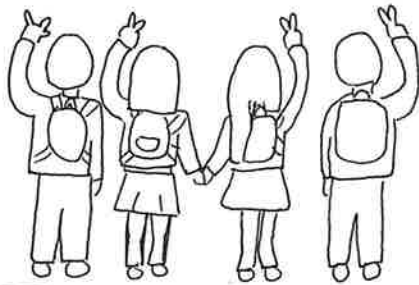


마크라 우게니아한테 말하니 도도사처럼 물어보는  
구나. 한마리가 꿈틀거린 것처럼 비록 한 미소  
가 없었지. 라마동나 먹은 생쥐 같은 녀석  
들은 벗기지도 않은 마나나를 왜지처럼 우뚝우뚝  
서버 먹었다. (오빠의 한 근치수의 역화)

(정지현)



# 체리새우 : 비밀을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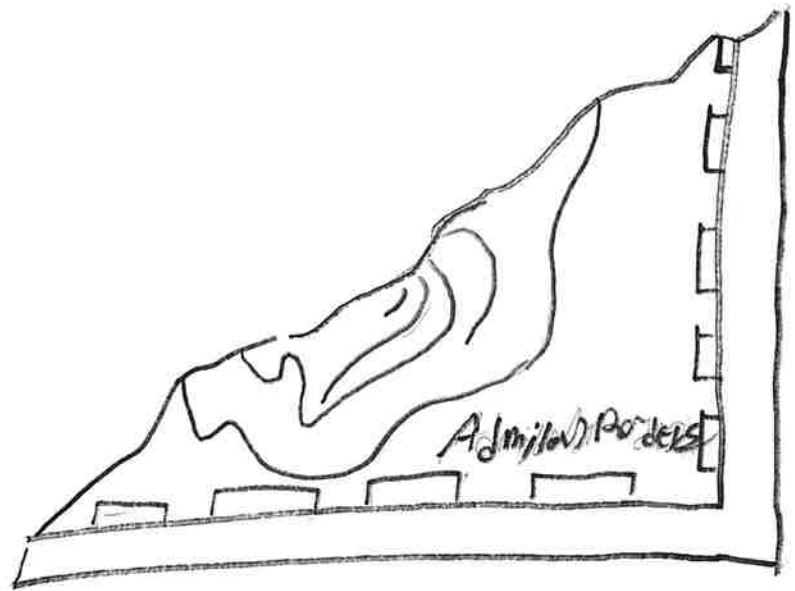
그걸 알았어. 근데  
포인트보다 가벼운 애잖아.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나를 미워하는 애들은  
신경쓰지 말래.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한테만 강하게도 인성이 강하게 변했어



창비  
Changbi Publishers

# 지도의 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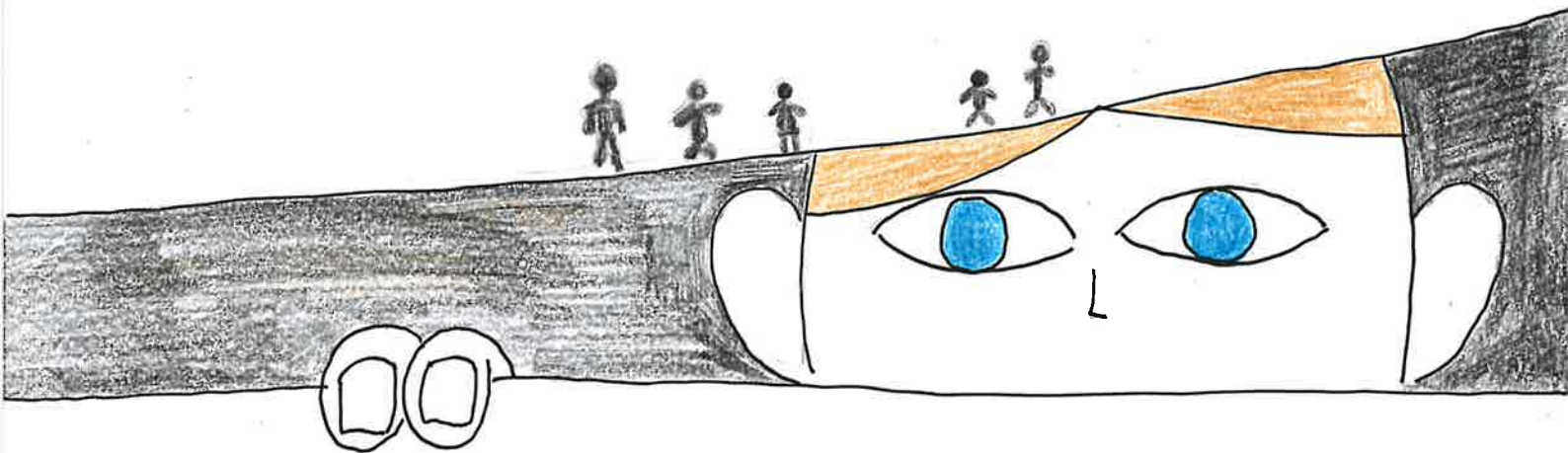


어느날, 막대한 유물을 숨겼다는 레이더스 제독의 지도 조각을 발견한 역사 고고학 교수 잠뜰, 나머지 지도 조각을 찾는 신물 광고를 내게 되고, 네 명의 남자가 잠뜰을 찾아온다! 그러나 조사를 진행할수록 위험천만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잠뜰은 모두에게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땅 속에 묻힌 거대한 진실!  
과연 지도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 그림자 아이들



마거릿 피터슨 해딕스 지음 / 이혜선 옮김.

정부는 식량난의 이유로 셋째 아이를 낳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다.

이런 세상에서 셋째로 태어난 아이들은 평생 숨어 살거나 위로 신변증을 구해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중 하나인 12살 주인공 루크는 엄마, 아빠, 형들과 달리 자신 혼자만 숨어 살아 담담하고 자신도 가족들처럼 집 밖에 나가고 싶어한다. 늘 숨어 지내던 루크는 어느 날 이웃집 창문 너머에서 낯선 여자아이 얼굴을 발견한다. 그리고 목숨을 건 시도 끝에 또 다른 그림자 아이 전을 만난다. 발랄하고 호감한 전은 자신들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정부에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해 숨어 사는 아이들을 인터넷 채팅으로 모은다.

# 사막의

아프리카 사막 유목민 소녀가  
세계적인 슈퍼모델, 유엔 인권 대사가 되기까지의

## 삶과 꿈



와리스 디리 | 캐롤린 말러  
아다호 | 옮김

알라신은  
나를  
살려두어야 할  
아름가 있었나 보다

우리는 살기 위해 전마던  
힘 까지 다해야 했는데...



# 수상한 유튜버 과학 탐정

그건 아시죠?

범죄자보다 범죄자를  
잡는사람이 더 똑똑합니다.  
우리 처럼요



3명의 학생들이 하는 과학 유튜브 구독자는 별로 없지만 죽리와 과학원리로 넋큰에 있는 사건들을 하나 하나  
처리하는 이야기 경호, 창훈, 영상 셋에서 사건영상을 올리러 사건장소로 갔다. 사건들을 처리하고  
범인을 찾아낼수있을지! 과학탐정 삼총사의 이야기에 빠져들다보면 물리,생물,화학,지구 과학  
등 과학 교과 내용을 쉽게 익힐수 있습니다.



# The Giver

## 기억 전달사

조이스 키리글 · 장은영 옮김



“저는 사랑이라는 느낌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모두가 똑같은 형태의 가족을 가지고 동일한 교육을 받으며 생활하는 곳  
이곳에서는 열등생이 되든 위원이 되든 식별을 정해준다. 열등생이 될  
것을 앞둔 조너스는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그런데 조너스에게 내리  
신 식별은 “기억 전달사” 과거의 기억을 유원에게 주고 있어야 하는 사람  
이란다.

모르면 두렵지만,  
제대로 알면 맞설 수 있어!

# 바이러스 좀 아는 10 대

바이러스

조금

아는

10대



저희가  
알고  
싶어  
하는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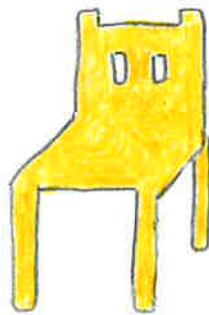
# 크리스마스 캐럴

찰스 디킨스 글 | 아서 레컴 그림 | 김은하 옮김

“저를 찾아온다면 유령님이십니까?”

크리스마스 전날밤, 악덕 귀족의 영감 스코루지가 세 유령을 만나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담은 크리스마스 캐럴은 기쁜 마음을 주고 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워주며 크리스마스를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탈바꿈 시켰다.

이제에도 인정 않는 귀족의 영감 스코루지! 하룻밤 사이에 네 명의 유령을 만나 어둠의 마음을 품는 새사람으로 거듭날까? 귀족의 귀족을 그려고 있다.



한 의자가 홀로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의 깜깜한 밤인줄만 알지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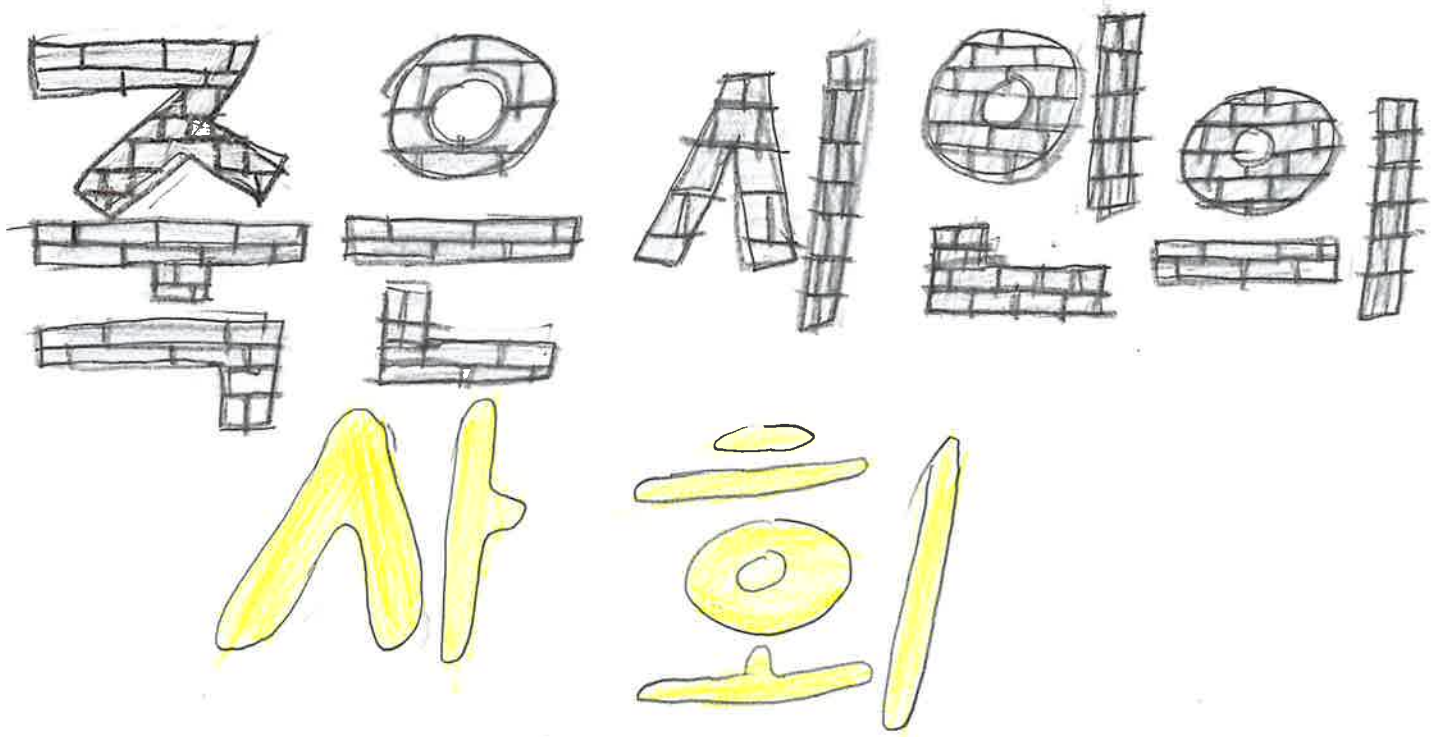
는 환한 햇살이 다가올 것을 모호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러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스즈메의 문단속을

읽어보시요 =>





수 많은 학생들을 아이비리그에 진학시킨 미국의  
명문 고등학교인 웰튼 고등학교.

그 곳은 선생님들의 엄격한 통제와 학교 규칙으로  
공복이외의 다른 것들은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곳의 학생들에게 웰튼 고등학교(지금 고등학교)라고  
불리었다. 그러던 어느 날 존 캐팅이라는 새로운 국어  
선생님이 오며 학생들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 설원의 독수리

마이크를 모르고 글 마이크 포벤 그림

**주제** 이 책은 마이크 포벤의 <설원의 독수리>라는 책입니다.  
어떤 한 아이가 엄마와 기차를 타는데 어떤 아저씨가 와서  
아저씨는 제 2차 세계대전의 나치정권 ~~원~~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줄까

## 작가 소개 마이크 포벤

1943년 영국에서 태어남. 지금까지 2100여권이 넘는 책을 출간한 탁월한  
이야기꾼으로 영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나비사자》로 스마티즈 상을, 《잔기바》로 어린이 도서 상과  
퀴즈브레드 상을 받았습다.

## 그림 마이크 포벤

1938년 영국에서 태어남. 왕립 미술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흥미로운 그림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어린 시절 직접 경험한 제 2차 세계대전을 소재로 한  
그림책을 많이 썼습니다.



# 문학이 온다



글쓴이: 주윤섭, 박완서, 오정희  
그림: 오승민 엮음: 김민혁, 권정숙

아름다움을 느끼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상상력에 흠뻑  
바질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지닌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며 사람들이  
겪는 다양한 갈등과 고민을 접하며 삶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필을 통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과학 기술이 발달한 미래를 지식보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문학 작품 읽기는 더욱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 어린이를 위한 자신감

글 이혜진 그림 명수정





사람이라는 단어 하나로 전파 죽고 인생을 살아야지.  
 사랑, 긍정, 희망, 위로, 감사, 믿음, 겸손, 배려 같은 사람의 성분을 더 자주 더 차세히 들여다보아야지.  
 사람 사는 세상을 가는 길가에 내 능력과 내 시간을 부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지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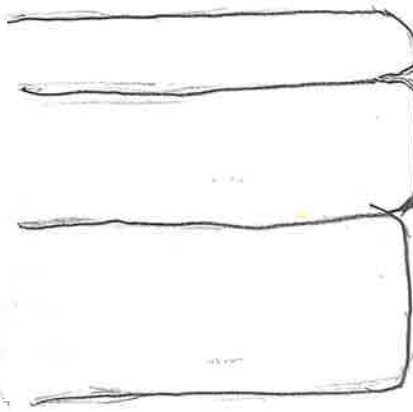
이제 제 글쓰기를 크게 매듭짓는 책을 내놓습니다.

어쩌면 이 해권을 위해 차곡차곡 시간을 쌓아왔는지 모릅니다.

- 카피라이터 정철

카피라이터 정철,  
 1234가지 일상 단어로 '사람'을 말하다  
 엄마, 가족, 눈물, 고통, 초콜릿.....

사  
 람  
 사  
 전



카피라이터 정철의 처음

도움되는 이야기, 힘이 되는 이야기

세상 모든 단어에는 사람이 산다

카피라이터 정철의 최고의 작품

구매시 이름 더위를 날려줄 선홍색 증정

어쩌면 이 해권을 위해 차곡차곡 시간을 쌓아왔는지 모릅니다.

- 카피라이터 정철 -

히밍 버드  
 Hummingbird

# 폰더씨의 실천하는 하루

앤디 앤드루스 지음  
하운숙 옮김

인공까지 결단으로 삶을 바꾸는 법!  
그 인공까지 결단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늑대와 달리는 소년

# 온프와원더

캐서린 런텔 | 박현주 글

제게 21  
바라 15



2 리 3 석 방

당신 0-11 7-11 이 주일 11-11 0-11

시 7-11 이 0-11 5-11 0-1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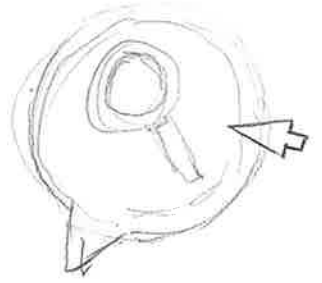


# 베서니와 괴물의 모험

이 책에서는 에벤셀이라는 흥미로운 물  
약을 만드는 남자라, 많은 안들 베서니 리를  
이 등장한다. 괴물은 주인공을 말하면 뒤  
돌리 다 준다. 괴물은 어린아이를 먹으려다 했  
고 에벤셀은 안된다고 했지만 괴물은 그런 말을  
주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베서니를 겁양하고 살을 지쳐 괴물에게  
먹힐생각 이었다. 하지만 어리다네는 한번도 주절하지 않아서 에벤셀은 괴물을  
잡을방법을 찾았고, 괴물이 트럼펫을 먹으면 사라진다는 말이 전해지자  
베서니가 트럼펫을 사 괴물에게 먹혔다. 에벤셀은 자웅에 베서니가 나  
뽀아인을 알았지만 복고방이 돌아간 사건을 듣고 불쌍하게 여겼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괴물은 주절양육하는 꿈이 너무 절한다.



(이름)



5/11/10  
2010

“아이들만 들 수 있는 꿈의 나라, 네버랜드에 온 것 같아!”

# 비밀 사이트 네버랜드

글 | 장한예    그림 | 전명진